

<봉헌과 감사의 기도>

(목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중)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 영원하신 하나님, 옛적에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미래를 향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드리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의를 온 세계에 세우실 것을 갈망합니다. 그 때에 우리가 주님의 화려한 잔치에 참여하여 하늘 성가대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회중)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을 보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은사로 우리를 양육하소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셔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랑과 삶을 나누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신 이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생명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넘치도록 채우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파송

<성탄절 성만찬>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락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 설교 : “피조물의 탄식,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
/ 롬 8:18-25; 창 1:28; 막16:15 >

✠ 교회 소식 ✠

㉠ 예배

우리는 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부담감은 내려놓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 성찬식&세례식 : 21일(오늘) 2부 예배 시
*세례대상자 : 임로아 (유아세례), 김의천 마푸름 승정훈 윤서준 이재운 (입교), 강현규 김준 박종렬 이영란 (세례)
- 교회학교 성탄발표회 : 21일(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
- 성탄축하예배 : 25일(목) 오전 11시
- 은퇴추대식 : 28일(주) 2부 예배 시
* 은퇴장로 : 백종관 오병욱 * 은퇴집사 : 김상일 최종걸
* 은퇴권사 : 김현수 이선옥 장현숙
* 명예집사 : 강기석 김광엽 정세학 * 명예권사 : 김란향
- 신년예배 : 2026년 1월 1일(목) 오전 7시

㉡ 모임

- 한길 여전도회 월례회 : 21일(오늘) 오후 12시 30분, 영아유치부실
- 한샘 여전도회 월례회 : 21일(오늘) 오후 12시 30분, 본당 성가대
- 한빛 여전도회 월례회 : 21일(오늘) 2부 예배 후, 기도실
- 한누리 남선교회 월례회 : 21일(오늘) 2부 예배 후, 남선교회실
- 일대일제자훈련 양육자기도회 : 26일(금) 오전 10시 30분, 남선교회실
- 시무권사 온라인 기도모임 : 26일(금) 오후 7시 30분
- 중보기도 소모임 : 27일(토) 오전 10시 30분, 소가재

㉢ 온가족이 함께 하는 "송년 감사의 밤" : 31일(수) 오후 5시~12시, 소가재

- 내용 : 팻력, 말씀나눔, 공동체 게임, 티타임
- 문의 : 길석현 권사 (가정사역부장)

㉣ 향존직 피택자교육 : 23일(화) 저녁 7시, 회의실

㉤ 교역자 사임 : 김석준 목사(청년부)

㉥ 식당봉사

- 21일(주) : 김옥실 장형순 최은진 / 송홍식 이강민
- 28일(주) : 권은경 오순원 함영림 / 이호진 임채호

㉦ 교우소식

- 장례 : 고 조성용 집사(602구역, 조상원 집사 부친, 안경진 집사 시부) 13일(토) 별세
- 출산 : 송홍식 집사, 김연신 권사(102구역) 13일(토) 득손자



1 부



2025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신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마태복음 1:18-23

화려한 조명과 캐럴이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그러나 군중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고독(Christmas Blues)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성탄은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요셉은 약혼녀의 임신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배신감과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 첫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어둡고 외로운 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두 가지 이름을 주십니다.

첫째, '예수(Jesus)'입니다. 이는 우리를 죄와 절망의 물웅덩이에서 건져 내시는 '구조대원'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둘째, '임마누엘(Emmanuel)'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올라가려 노력하지만, 복음은 신이 인간의 고독한 옆자리로 내려와 앉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의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내 옆에 앉아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가 성탄의 기적을 만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자가 아닙니다.

[소그룹 나눔 질문]

1. 성탄절이나 연말연시가 되면 들뜬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허전하거나 외로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꼈던 순간을 나눠봅시다.)

2. 설교 중 "내 인생 식탁의 텅 빈 의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의 채워주심과 위로가 가장 필요한 '빈자리(영역)'는 어디인가요? (예: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지친 마음 등)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대림절 넷째주일/성탄주일 예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개회예전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정울림> 말 은 이

<대림절 촛불점화>

(목사) 마리아가 가로되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눅1:38) *(촛불 점화)* 주님의 빛 가운데로 행합시다.

<개회송> (오르간)

<대림절의 연도>

(목사) 오! 지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모든 피조물을 충만히 감싸며 능력과 온유로 모든 것을 명하십니다. 이제 오셔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소서.

(회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사) 오! 주여, 이스라엘 집의 주권자여,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시내산에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강한 손과 편 팔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회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사) 오! 이새의 뿌리여, 온 백성을 위한 표징으로 일어나시니 세상 왕들이 주님 앞에서 잠잠하며 민족들이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회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사) 오! 다윗의 열쇠여, 이스라엘 집 위의 흠이여, 주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오셔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행하던 죄인들을 놓아주소서.

(회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사) 오! 찬란한 새벽이여, 영원한 빛의 광채여, 정의의 태양이여, 오셔서 어둠 속에 사는 자,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자 위에 비추소서.

(회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사) 오! 온 민족의 왕이여, 백성이 갈망하는 임금이여, 주님은 온 인류를 결합하시는 모퉁이돌이십니다. 오셔서 주께서 진흥으로 빛으신 우리 모두를 구원하소서.

(회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사) 오! 임마누엘이여, 우리의 주권자, 율법의 주이시고 민족들의 소망이여 만민의 구주십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회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잠시 묵상기도)

(목사)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 온 땅이 소망 가운데 우리 구세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갈망합니다. 그는 영원무궁토록 주님이시니 그가 오실 때에 마음을 다하여 영접합시다.

(회중) 아멘

찬 송 34장 다 같 이

<죄의 고백과 용서>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히 고백합니다.

(잠시 묵상기도)

(2) 죄의 고백

(다같이) 미래의 하나님, 주님은 능력으로 오셔서 온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파묻혀 주님의 약속하신 심판을 무시하고 주님 나라를 고대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이웃을 착취했으며, 이 땅을 학대했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거부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께 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꺼이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려 오실 때에 영원한 것을 구하게 하소서.

(3) 사죄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중)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예전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104장 다 같 이

<구약의 말씀> 이사야 7:14(975) 권은경 집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의 말씀> 갈라디아서 4:4-5(306) 권은경 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묵상>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민동림 권사

오르간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1:18-23(1) 박정희 권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 설 교 > 『신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황영태 목사

<설교 후 응답> (계7: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회중) 아멘.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박정희 권사